

# “부실·부정 용어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기고

이용석

前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청년대변인

청년세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청년들의 극우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부실’과 ‘부정’ 용어의 혼재를 주목해야 한다.

청년층이 존재한다고 답한 ‘부정선거’는 선거 결과의 당락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선거(협의를 부정선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선거 혹은 행정적 부실선거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부정’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봐도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인바, 그들에게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파적 고의를 떠나서 그 자체로 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충분하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은 극우가 주장하는 선거결과 당락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는 용어로 이

해하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두고 “역시 2030극우화가 맞구나” 하는 경로의존적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지어선 안 된다. 청년세대가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들이 음모론에 경도됐거나 극우세력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의 불완전함과 상식적이지 못한 과정에 대한 ‘분노와 비판 의식’이 용어선택 과정에서 투영된 결과이다.

나아가, 책임정치인이라면 청년들이 선택한 용어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선관위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표출할 마땅한 통로가 부족했기에, 이들은 여론조사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선관위에 분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이러한 외침에 끊임없이 주목해야 한다.

잠실 시위에 자진해서 온 청년들이 반응하는 핵심 동력은 과거 극우 유투버들이 주장하던 황당무계한 조작설이 아니라, 소중한 권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상식적인 분노이다. 특히 공정과 절

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크게 낸 것이다.

극우 세력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 과거의 노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대신 부실 선거를 바로잡자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공감을 유도한 뒤, 은근슬쩍 “이재명 정부의 선관위가 고의로 개입했다”는 ‘부정선거(조작)’ 프레임에 끼워 넣는 것이다.

99%의 합리적인 비판에 1%의 정치적 악의를 섞어 대중의 무의식을 잠식해 나가려는 매우 악질적 행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극우 음모론에 빠졌다”고 치부하며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패착이다. 청년들의 분노를 잠식할 정당한 대신자들의 지위를 극우 세력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청년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풀어 안고 결과적으로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추진의 그림을 민주당이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동형 하이에나 정치 세력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청년대변인(공인노무사)

## 완판 그 이후



기지수첩

허정운

(자본시장부)

“5일 만에 6000억원 완판 신화!”

이 문장만 보면 흡소핑 광고 문구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상품은 웃도, 여행 패키지도, 건강식품도 아니다. 정부가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내놓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5월 출시 5일 만에 6000억원이 모두 팔렸다. 정부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자 곧바로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제2차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나섰다. 흥행만 놓고 보면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잘 팔린 펀드’와 ‘성공한 펀드’는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진짜 성패는 판매 속도가 아니라 5년 뒤 투자자들에게 어떤 성과를 돌려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흥행에는 최근 증시 상승세와 첨단산업 투자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부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 구조와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돌아켜보면 정책형 펀드의 출발은 늘 화려했다. 뉴딜펀드(문재인 정부), 녹색성장펀드(이명박 정부), 통일대박펀드(박근혜 정부)까지 이름은 달랐지만 ‘정책과 투자’를 결합한 실험이라는 점은 같았다.

물론 국민성장펀드를 과거 정책펀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AI,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운용사 자율 투자도 일부 허용해 과거보다 유연한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투자’보다 ‘회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성장 기업에도 상당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그러나 투자금을 회수할 시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본은 선순환하기 어렵다. 상장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투자금은 장기간 묶일 수 있고, 비상장 주식 세컨더리 시장과 M&A 시장 역시 아직 활성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은 몇 차례 완판을 기록했는지 아니라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건강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민간 운용사의 전문성과 시장의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할 제도적 기반을 다질 때다. 부디 5년 뒤 ‘성공한 국민성장펀드’라는 헤드라인을 쓰게 되길 바란다.

/zelkov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7일 (음 5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60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72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84년생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이 듭니다.



49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겠습니다. 61년생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 힘을 빼게 됩니다. 73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입니다. 85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년생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세요. 62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74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세요. 86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호전됩니다.



51년생 주변 상황에 낙심하지 마세요.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63년생 길 밖으로 나가심이 좋겠습니다. 75년생 부지런히 움직일 때입니다. 87년생 지금은 실패 때가 아닙니다.



52년생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됩니다. 64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76년생 사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8년생 상대의 마음 돌릴 길이 없습니다.



53년생 큰 꿈은 포기함이 좋을 듯 합니다. 65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77년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89년생 주위의 알은 말을 듣고 꺾이지 마세요.



54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66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78년생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90년생 하늘이 큰복을 주니 만사형통입니다.



55년생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7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1년생 물가에 가려 거든 조금만 미루세요.



56년생 동쪽이 길방향을입니다. 68년생 혼자이라 외롭고 처량합니다. 80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건강에 무리 없었으니 휴식이 절실합니다.



57년생 관제 구실을 조심 해야겠습니다. 69년생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세상이 변해 갑니다. 81년생 가까운 곳의 나들이는 길합니다. 93년생 애정운이 길하니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58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70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82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94년생 방향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5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71년생 단체 생활을 하면 매우 길합니다. 83년생 큰 뜻을 이루니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95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 김상회의四季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이다. 굳이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거나 물러서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 있기에 나온 말이기도 할 것이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비록 싸워서 이겼다 한들 남는 것은 진 자의 원한이기에 끝없는 복수의 부대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오나라의 부처와 월나라의 구천 외신상담이 그 좋은 예이다. 영어권 나라에서는 직역해도 역시 같은 의미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의미인 “Losing is equal to winning.”이라는 속담을 쓰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펜이 칼을 이긴다.” (The pen wins the sword.) 라는 영국 속담 역시 비슷한 함의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슬람권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복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결국 끝없는 싸움이 모두에게 고통과 패배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며, 자국의 이슬람권과 서양 기독교문화권과의 갈등이 아직도 되풀이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특히나 노자의 도덕경을 보자면 ‘곡즉전 왕즉지 와즉영 폐즉신 소즉득 다즉후’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弊則斷 少則得 多則惑), 이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풀이해보자면 ‘굽하면 온전하고, 구부리면 펴지며, 오목하면 채워지고, 해지면 새로워지며,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서 천하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부러지는 것보다 구부러지는 것이 낫다는 뜻이며, 강하게 주장을 고집하면 적을 많이 만들게 되니 유연하게 상황에 맞추어 나가며 적응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우리 속담에도 모란 돌이 징 맞는다고 하지 않던가? 맞설 현령이 안 되는데 각기로 맞서며 시비를 가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6	5	2			3	
		9					
		4	9	6		5	
2	8				5	9	4
	2			3			
3	4	5			1	9	
5		8	3	4			
				7			
7		2	9	8		1	

1			3	6			4
	3		6		8	9	
	2		7	9			
9	4						
8	7	3			9	2	6
					4	3	
				3	9		8
	9	6		5		4	
3		8	1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1	8	6	9	2	7	9	4
2	9	7	4	9	1	8	6
9	1	4	7	8	6	2	9
6	9	1	8	2	4	9	7
8	4	8	9	7	1	2	6
7	6	9	1	8	9	8	1
9	8	2	9	6	7	4	1
4	2	9	1	8	6	8	9
8	7	6	2	1	9	9	4

6	4	9	2	1	8	9	7	8
1	7	8	9	2	9	6	4	8
9	8	1	7	6	8	4	9	2
8	9	7	4	2	6	8	1	9
9	2	6	9	7	1	8	4	8
2	1	4	8	9	7	9	6	1
8	8	9	6	4	7	1	2	9
4	6	8	1	9	9	2	8	7
7	4	2	9	8	4	6	8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